

‘소통·화합’ ‘교육·포교’ 가 화두

조계종, 제33대 총무원 4개년 발전계획... 교육 개선 등 핵심과제 제시

“지금까지 조계종은 한국사회 갈등과 대립되는 문제에 내적인 해결에만 치중했습니다. 제33대 총무원은 사회갈등에 관심을 갖고 종단 외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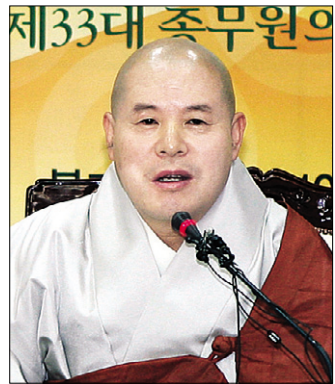
새 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이 4년간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사업계획을 비롯한 제33대 총무원의 4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4개년 발전계획은 △3대 종무기조 △11대 핵심과제 △25대 주요과제로 이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승 스님은 △수행중흥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의 3대 종무기조를 설명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의 발전하며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단 안팎의 발전 기초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 재정, 사회, 포교 등 각 분야별 11대 핵심과제도 선정됐다. 11대 핵심과제는 △승가교육 개선 △신도교육, 조직화 △수행법의 표준체계 정립, 대중화 △종교간 협력 통한 공동선 실현 △사회갈등 해



소 위한 화쟁위원회 구성 △수행·전법을 위한 승가복지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활용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 △총본산 조계사에 전통문화 공간 조성 △국립공원·문화재구역입장료 제도 개선 △종단재정구조 합리화다.

이중 화쟁위원회는 불교계 각 NGO 전문가들로 구성돼 사회 현안에 대한 종단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조계사 사적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시설과 연계한 사업도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25대 주요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나감에 있어 매월 점검·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5대 주요과제에는 △결계포살의 정착 △주지 인사사고와 시행 △종단발전위원회 구성 △자비나눔 확산 △불자네트워크화 △불교대안연구소 운영 △해외특별교구 설립 △국제

선센터 개원 운영(재무부) △청년 대학생 계층포교 활성화 △군포교역역 강화 △불교무형문화유산 육성 △사찰음식 대중화 △템플스테이 국제화 △불교미디어 활성화 지원 △환경보호 활동 및 사찰 수행환경 개선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 △불교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종단 등 토지처분금 효과적 활용 △사찰등급 현실화를 통한 분담금 조정 △종단 재정의 다변화 △전산데이터베이스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25대 주요과제 중 을 하반기 직할교구에서 시범 도입되는 주지 인사사고과제도는 포교, 사회복지 등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 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조계종은 이러한 방안에 따라 2010년 종도 합인·제도보완, 2011년 법령과 재원 마련에 치중하고 2013년까지 36개 과제를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수요집회 900회 18년의 외침

도쿄 등 일본 5개 도시에서도 연대 집회 열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열여은 ‘수요집회’가 1월 13일로 900회를 맞았다.

1992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외침이 18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

이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900회 집회에는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4명을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외쳤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제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회하고 배상하는 것만이 일본정부가 속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우리가 죽은 후에는 아무리 속죄 받고 싶어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요집회는 900회를 맞아 도쿄와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 일본 5개 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박선주 기자

“사회에 눈 돌려 부처님 말씀 실천”

조계종, 불교NGO 초청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견실에서 열린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 초청 오찬’에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 등 15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자승 스님은 “그간 우리불교가 사회적 지위는 있지만 사회적 역할부에서는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점”을 지적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불교NGO단체와 종단이 함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소통과 화합의 시대에 맞춰 ‘화쟁위원회’를 설립해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대표님들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말씀 해주시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은 “지난 10년간 연대를 이끌면서 때로는 종단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결립을 일 때도 있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수경 스님은 “하지만 이렇게 원장 스님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각 단체의

대표들을 초청한 것에 감사하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불교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안에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해 실행하자”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종단이 12월 발표한 로드맵을 철저히 실천하고 불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한국불교는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대표는 불교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대표는 “화쟁위원회 구성에 적극 찬성한다”며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전문가는 물론 갈등해결 관련 학자도 포함시켜 활발하고 실제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조계종 행자용 교육지침 나와

조계종 교육원 1년과정 5단계 교육 이뤄져

앞으로 조계종 행자는 전국 어느 사찰에서 출가하더라도 양질의 표준화된 기초교육을 제공받게 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행자)교육과정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출가수행자의 새로운 삶의 방향성 정립과 출가자로서 자비수행을 위한 ‘발심과 원력’의 정립에 목적을 두고 새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시행되는 기초 교육과정 지침은 1년 여 과정으로 △행자 등 특한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돼 오던 일상교육 △교육원이 행자등록 2개월 이내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입문교육 △교구본사가 안거 기간(3개월) 동안 행자의 기초교육

을 담당하는 본사교육 △교구본사 단위로 수계교육 이전에 기초교리, 습의, 염불의식 등 숙지 정도를 점검하는 수계예비교육 △교육원이 사미·사미니계 수계에 앞서 진행하는 수계교육의 5단계로 분류·시행 된다.

이 과정에서 은사스님의 재량에 따라 특정 교구본사로의 위탁교육이 가능해지고, 교구본사간 연합 집체교육 등 새로운 교육 모델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기초교육 과정은 은사를 중심으로 개별사찰과 교구본사의 행자교육원 인교 전 점검교육, 행자교육원에서 6개월 여 동안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전부였다.

월별 교육일정표도 새로 구성돼 행자교육 개월 수별로 기초교리학

습, 기초습의교육, 기초염불, 권장도서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자를 위한 권장도서는 교육원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전국 30개 사찰에 비치할 예정이다. 권장도서는 <행해인문>(조계종교육원 1월) 등 염불의식 서적과 <부처님의 생애>(조계종교육원 1월) 등 교리인문서, <나의 행자시절> 시리즈(다함미디어 1월),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김영사 1월) 등 사찰생활서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원의 기초교육 지침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원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첫 번째로 조계종 승가교육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특히 11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제33대 집행부 3대 종무기조 중 하나로 ‘교육과 포교를 위한 불교중흥’을 천명하면서 조계종 승가교육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선주 기자

조계종·진흥원·BBS 토론회 연다

조계종 진흥원특위 28일 개최

‘조계종과 진흥원 및 불교방송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1월 28일 오후 2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 대한불교진흥원 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

연, 이하 진흥원특위)는 1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위원장 의원 스님이 행사발제를 하며, 토론자는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 박준영 前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장으로 확정했다. 토론은 △조계종과 진흥원 관계 △진흥원과 불교방송의 관계 △조계종과 불교방송의 관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편, 진흥원 특위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대한불교진흥원 측을 대신해 10·27법난대책위 관계자의 토론 참석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선주 기자



죽비와 목탁

부처님, 아이폰에도 나투세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이폰용 프로그램(어플) 출시 소식이 울려다졌다. 가톨릭 신자를 위한 ‘매일 미사’와 ‘라디오 평화방송’ 어플이었다. 리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기다렸다”부터, “신부님 말씀을 핸드폰으로 듣게 됐다”, “다시 성당에 나가야할 것 같다”, “성당에서 ‘매일 미사’ 책 대신에 아이폰 들고 미사 보는 광경이 조만간 연출될 것”이라는 말까지.

지난해 말 애플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매킨토시에서는 ‘스마트

폰’ 관련 기사가 연일 끊이지 않는다. 스마트폰 프로그램 판매사 이트인 ‘앱스토어(Appstore)’도 활성화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의 어플 수는 10여 만 개, 한 달 매출액만 2500여 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불교 관련 한글 콘텐츠는 단 한 개도 없다. 영어권에서도 겨우 찾은 것이 달라이 라마의 법문이었다. 이에 반해 이웃종교는 셀 수 없이 많다. 수많은 영어 어플을 제외하고 한글로 제작된 것만 10여 종이 넘는다. 개신교

계의 ‘신약성경’ ‘한글성경’ ‘개역찬송가’ 등을 비롯해 가톨릭계의 ‘매일미사’ ‘가톨릭성가’ ‘가톨릭 성인’ ‘라디오 평화방송’ 등이 그 예다.

이웃종교의 어플 중 다수는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전후해 붓물처럼 쏟아졌다. 이웃종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스마트폰을 선교의 수단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아이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활용되도록

하나의 소스를 갖고 다양한 포맷으로 콘텐츠를 제공 중이기도 하다.

법보시는 가장 수승한 공덕이요,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것은 최상의 공양이라 했다. 나는 믿고 싶다. 지금 어딘가에서 아이폰용 불교 콘텐츠를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삼천대천세계 아니 계산 곳 없으신 부처님, 왜 우리 핸드폰에는 안계신가요?”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禪박사 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직 공부할 뿐입니다.

선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공부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만 원정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법화경 공부의 지름길!
법화경의 옛센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만 원정 / 278쪽 / 값9,500원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만 원정 / 304쪽 / 값9,500원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제, 천도제, 예수제, 기도 백팔만년, 음 마니 만대 음,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만 원정 / 352쪽 / 값9,500원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만 원정 / 320쪽 / 값9,500원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생법스님 지음 / 46만 원정 / 328쪽 / 값9,500원

불교의 핵심 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만 원정 / 320쪽 / 값9,500원